권리당원 36%…이번주 호남 경선이 민주 지도부 결정한다

독주 체제 구축한 이재명
호남서 사실상 승리 선언 채비
전북 장수 출신 박용진
일대일 구도에 반전 계기 기대
친명 4명 당선권 최고위원 경선
송갑석 후보 선전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종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치러지는 호남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새로운 지도부의 면면이 사실상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당권주자들은 물론 최고위원 주자들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진보진영의 심장 역할을 하는 호남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데다 권리당원 비중도 전체의 36%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호남지역 경선 결과는 수도권 경선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대 성적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인 강훈식 후보가 15일 전격 사퇴, 당권 구도는 이재명, 박용진 후보의 양자 구도로 압축되면서 최대 표밭인 호남과 수도권 대전을 앞두고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의 선전 등은 최고위원 경선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강원·경북·대구, 제주·인천, 울산·경남·부산, 세종·충북·충남·대전 등 그동안 12개 시·도에서 치러진 권리당원 투표 결과 누적 73.28%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처음 발표된 1차 국민 여론조사(12, 13일 진행)에서도 79.69%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호남 대전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거둬 사실상 호남에서 승리를 선언하겠다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15일 오전 10시 순천, 오후 3시 목포, 오후 7시 광주에서 각각 당원·지지자 만남 행사를 잇달아 가질 예정이다. 강훈식 후보가 사퇴했지만 박용진 후보를 지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반응이다. 다만, 독주 분위기에 따른 반발 표심도 있는 만큼 보다 겸손한 자세로 지지를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는 이 후보의 승리를 완벽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며 "낮은 자세로 호남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북 장수 출신의 박용진 후보는 호남 대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당헌 80조 개정 등 민주당 전대가 '이재명 당'을 만드는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그래도 호남에서 이를 견제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또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전한다면 충분히 역전의 바람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특히, 강훈식 후보의 사퇴로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당권 구도에 강력한 변화가 형성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박 후보 진영 핵심 관계자는 "강 후보의 사퇴에 이어 호남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독주 구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대전' 결과는 최고위원 경선 구도를 뒤흔들 전망이다. 현재 친명(친 이재명) 주자가 당선권인 5위 이내에 4명이 들어간 가운데 호남 단일 주자인 송갑석 후보와 전북이 고향인 윤영찬 후보의 선전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호남 단일 최고위원 주자인 송갑석 후보 측에서는 호남지역 경선에서 압승, 당선권인 4위 이내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도 선전하고 대의원 투표 등에서도 상당한 표심을 잡는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친명 후보는 4명이라는 점에서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친문 주자인 고민정 후보도 분전이 예상되고 있어 1인 2표제를 감안한다면 송 후보가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송 후보 측에서는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8만 명에 이르는 호남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과반을 넘는다면 누적 투표에 있어 3위 입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과 정치적 거리를 두고 있는 전북에서 송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인지가 변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윤영찬 후보는 전북의 지지와 광주·전남의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결집한다면 당선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친문 후보인 고민정 후보와 호남 단일후보인 송갑석 후보의 지지층과 겹친다는 점이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서 송 후보가 압승한다면 최고위원 경선 구도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호남 권리당원도 친명과 비명으로 갈리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도부에 호남 창구는 만들자는 여론이 저변에 확산되고 있어 송 후보의 선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30%대 재진입

리얼미터…1.1%포인트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만에 소폭 반등하며 30%대에 재진입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8~12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4%(매우 잘함 15.9%, 잘하는 편 14.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조사(29.3%) 대비 1.1%포인트 오른 것으로, 6월 4주 이후 하락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했다.

지난주 조사에서 취임 후 석 달만에 20%대로 떨어졌으나 한 주 만에 30%대에 재진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7월 1주차 조사(37.0%)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한 이후 7월 2주차(33.4%), 7월 3주차(33.3%), 7월 4주차(33.1%), 8월 1주차(29.3%) 조사에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67.8%)보다 0.6%포인트 내린 67.2%(매우 잘못함 59.3%, 잘못하는 편 7.9%)였다.

긍·부정 평가 간 차이는 36.8%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밖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 34.3%(5.1%p↑), 부산·울산·경남에서 36.0%(4.7%p↑), 대구·경북 47.1%(3.5%p↑), 서울 32.0%(1.4%p↑), 광주·전라 13.1%(1.2%p↓)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6.0%(4.3%p↑), 40대 20.5%(2.4%p↑), 20대 28.4%(1.5%p↑), 50대 27.6%(동률), 30대 26.1%(동률), 60대 38.4%(0.7%p↓)였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신 기능 보강

김대기 비서실장 등 유임 무게
김은혜 홍보특보 발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기능 보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적 쇄신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실 슬림화를 위해 사람을 너무 적게 뽑아둔 상태"라며 "사람을 더 뽑고 기능을 보강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의 개편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쇄신 의지를 내보여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국면 전환을 위한 단기 처방에 급급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은혜 전 의원의 추가 발탁 방안이 거론된다.

집권 초 대통령실의 홍보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온 만큼 지난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활약했던 김 전 의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을 신임 홍보수석이 아닌 홍보특보로 임명해 기존 홍보라인 화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홍보수석이나 특보와 다른 제3의 직제 신설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적임자 없이 섣불리 인적 쇄신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을 180도 탈바꿈할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취지로도 읽힌다.

당장 오는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변화와 쇄신'보다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 전면 개편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는 카드로 보인다.

국정 지지도가 20%대에서 횡보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